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섬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정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생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61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월 18일(음력 12월 19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런 자유인 되라!

여러분과 오늘, 새해에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곱됨을 굴리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이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인이 있나 없나를 알아 가지고 오라고 사신을 많이 내리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니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중나가는 사람을 잘 뽑아서 내보내야 했었죠. 이런 국운이 달린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소신껏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시라면 시, 또는 군이면 군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봐서, 입이 무겁고 아주 웅변하고 이 마음공부에 정갈하지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뽑았죠. 뽑아서 그 사람을 안내자로 내보냈는데 사신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새창으로 떡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가지고 나간 상을 놓고서 떡을 차려 놔는데 그쪽 사신이 거기서부터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한 번 시험해 보고 자기한테 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나라 전체를 그냥 하지 않게 보거든요.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죠.

거기서 안내자로 나간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러니까 떡을 냉큼 다섯 개를 집어 먹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떡을 먹다 말고 손가락을 세 개를 꺾으면서 아무 말 없이 무언(無言)의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 개를 먹었느냐?' 하는 줄 알고 '난 떡을 다섯 개를 먹었다.' 하고 다섯 손가락을 딱 내밀었다. 맞습니다. 하하하... 다섯 개를 딱 내미니까 그쪽에서는 '허, 삼강오륜을 그냥 통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선 가슴이 뜨끔해서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네모 모양을 그려보이시며)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는 네모반듯한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또 '동그란 떡을 먹었다.' 하고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보이시며) 그랬단 말입니다. 하하하... 얼마나 재밌는 애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쨌느냐 하면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정신계의 '참나'가, 뿌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언간에 내면에서 뿌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확연히 깨우치

진 못했어도 거기서 뜻을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떡 먹은 걸로 그냥 둘러서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뜩퍼뜩 생각을 했지. '아, 떡을 반듯한 거 먹었느냐 묻는구나.' 그러고선 '동그란 거 먹었다.' 그리고 '셋을 먹었느냐?' 하니까 '다섯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망하게 만들려고 가는 길을 스스로 이 안에서 훌륭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서 완벽하게 주장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이 몸속에 동쳐 있는 모든 악업 선업 그 자체들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떡을 먹는 걸로 생각을 나게 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능부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조선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아! 안내하는 사람도 이러하니 저 안에서 아저 같이 말이냐 물어보라.' 해서 그냥 펴

없이 돌아가니까 공(空)! 그래서 평등공에서 나오는 법은, 즉 말하자면 방향이 오면 철회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잘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도 허술히 듣지 말고 허술히 행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옛날에도 얘기했죠. 두 친구가 가다가 석준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한 사람은 사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나라마다 전체 왕들을 모아놔도 저렇게 이익하게 말씀은 못하실 거라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받아서 모르는 나라에서 좀 펴 봤으면...' 했답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냥 술을 잔뜩 먹고, 옛날에는 수레가 백대씩 이렇게 장으로 나가는 행렬들이 있었죠. 그런데 술을 먹고 쓰러져 가지곤 수레에 치어서 죽고, 한 사람은 친구가 죽으니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물건을 짊어지고선 배에 실어 가지고 어떤 섬나라로 갔답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오네요. (대중 웃음)

그때 그 나라의 인군이 돌아가셔서 새 인군을 뽑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말이 뽑아요. 말! 그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오루다가 웃을 해서 척 걸치고선 나와



그림 · 최주현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서

완벽하게 주장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서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술을 돌아가니며 구경만 하곤 있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그냥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삼강오륜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했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가 혀끝을 척 차면서 하는 소리가 '아! 그 나라를 치게 되면은 우리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치지 못하겠다.' 하드립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이 마음공부 하시는 양반들! (대중 웃음) 법이 법이라는 이름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항상 평등공(平等空)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이 아니다. 생명이 틀이 아니고 모두가 틀이 아니게 돌아간다 하는 평등공! 고정됨이

서 뽑는 거죠. 그런 나라예요. 그 사람이 집들은 어디다가 팔고 놓고 조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더니 양쪽으로 사람이 뿔뿔하게 들어왔는데 술술 그 말이 오더라고요. 그 말이 어떻게 영령인지 떡 오리니만 고개를 둘러서 그 보따리 킨 사람을 쳐 보더니,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다가, 다시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오더니 사람 틀에 킨 그 사람을 영령이로 자꾸 밀어서 그 사람이 물러나게 하드립니다. 그러고는 자꾸 피하니깐 자꾸 쫓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말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정승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이 '아, 여기 인군 될 분이 있

잖아! 잘 좋아할지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싸움을 붙이지도 않고 가장도 화목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크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딱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애들하고나, 가지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참나참나 딱쳐오는지... 또 어떤 때는 즐거움도 딱쳐와요. 뭐 어려움만 딱쳐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어려운 일만 많이 딱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놓으려고 했죠.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니까 어렵지 않게 하는 것도 나 밖에 없어.' 하고 되풀이해서 많은 물로 대처해서

돌아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 푸르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만약에 딱 나무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도와줄 줄 알고 딱 형상한테 빌고 딱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빈다면 거기서 에너지를 그리로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나무의 자기 뿌리만이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 공덕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들어 있고,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요 향나무 이파리 같은 것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네 내면, 그 육체 안에 생명들이 각계각종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수억 광년 전부터 진화돼서 바뀌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왔다는 증명서예요. 증명서, 내 몸통이가 증명서라구요. 그러나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통이를 배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커서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의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세세계예요. 중간에 서서 배를 타고 가는 셈이란 얘깁니다. 이 몸통이를 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생들이 그 속에 잔뜩 뒹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노를 젓고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울근불근해서 배가 뒤집히면 너와 내가 다 죽어요. 선장이요 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하고 선장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다 스리면서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 한 구멍에서만이 대처할 수 있다. 한 구멍에서 병을 내보냈으니가 한 구멍에서만 병을 낮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의 악업 선업이 영혼과 부착이 돼 가지고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지 않다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데서 오는 거라곤 없어요. 인의 악업 선업에서 좋고 기쁘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일을 할때도 수없이 안되는 수도 있고 잘되는 수도 있고, 해 보려고 하면 망하고, 좀 살만 하고 조금 모였단 하면 다 나가고 하

그 자체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나 보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태워도 뺨까지치고 저 사람을 태워도 또 뺨까지치더니 그 보따리 킨 사람을 태우니깐 그냥 툭 타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 말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군이 되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 여기도 부처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듣게 해야겠구나.' 해서, 부처님을 모셔다 설법을 듣게 해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배먹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하하하...

그랬듯이 우리가 마음을 잘 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법사 스님이 물러서지 않는 정진력과 실천력과 아무런 회가 나더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살림을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상대도 있고, 집안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첫째도 마음이요, 둘째도 마음이요, 셋째도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이 처음에 율떡 일어날 때에 탁 놔가지 그게 벌어져 가지고 얹히고설친 이후에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라 법사 스님이 그러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남이 언

쓰려고 하는 말을 수차례 했을 겁니다. 아따.

그러니까 생활하는 물질세계가 50%라고 한다면 정신세계가 또 50%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정맥 동맥이 같이 틀 아니게 돌아가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틀 아니게 같이 돌아가는니만큼 정신계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정신계로 돌아서 현실계로 나오는 거니깐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나올 거라면 먼저 거기다 놓아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융광토에다 현쇠를 넣으니가 재생돼서 새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탄도 부서진 거 갖다 넣으면 재생돼서 새토이 나옵니다. 방편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 안됐지만요. 하지 못한 방편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나 작으나 방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을 숭배할 줄 알았지, 그리고 숭배를 합네 하면서 이만큼 고(高)명(명)어리를 그냥 갖다가 집어 넣고는 그거를 갖혀 달라고, 우리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고, 뭐 일이 친척까지도 모두 잘되게 해 달라고 그냥 잡다하게 빌 뿐인데, 그렇게 해서 빌 일이 아니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서 모든 에너지가 흡수해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무는 태양열과 공기, 그 어떠한 에너지도 다 아래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야 올라가게 저절로 돌아가듯 생명이 저절로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닥쳐오는 어려움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놓으라!

☞ 29면에서 계속

는 문제들이 팔로는 다 할 수 없이 건건이 생기곤 하죠. 그것이 바로 선악업에서 나오는 까닭이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는 거마다 불바퀴에다 놓으라고 하죠. 오는 대로 그냥 거기 집어넣어라, 그러면 타 버린다. 닦치는 대로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그냥 '아이고, 버러자.' 그리고 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게 했으니까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고, 상황에 따라서 또 '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네가 모든 걸 막아야 하지 않아.' 하고 또 놓고 '이것은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놓고 '너만이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그 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거나, 잡혀갔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논다거나. 건건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돼서 애로가 많은 집들도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식구들이 전부 앓을 쓰는 집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대처를 해야 할까요는 겁니다. 우리가 시급한 게 지금 그게 지 만 있습니까? 내 몸과 가족들과, 모든 문제

입니다. 이런 무슨 까닭이나 이거죠. 악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바로 직속으로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낫는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가 묘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법사 스님을 다같이 이렇게 모시느냐 하면, 나는 위에서부터 내리 그냥 그 뜻을 배워 나왔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차차 올라가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아예 그냥, 그냥 돼 버려서요. 그러나 이 현 시점에서 사회의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예나 그런 것들을, 내가 혹시나 모르면 대처해 주십사 했던 거죠. 그래서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법사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틀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것이 전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맥과 동맥, 이들을 놓고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정신계와 물질계는 동일하게 같이 지금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들고 있거든요. 나로서는 부족하든지 부족하지 않든지 간에 온 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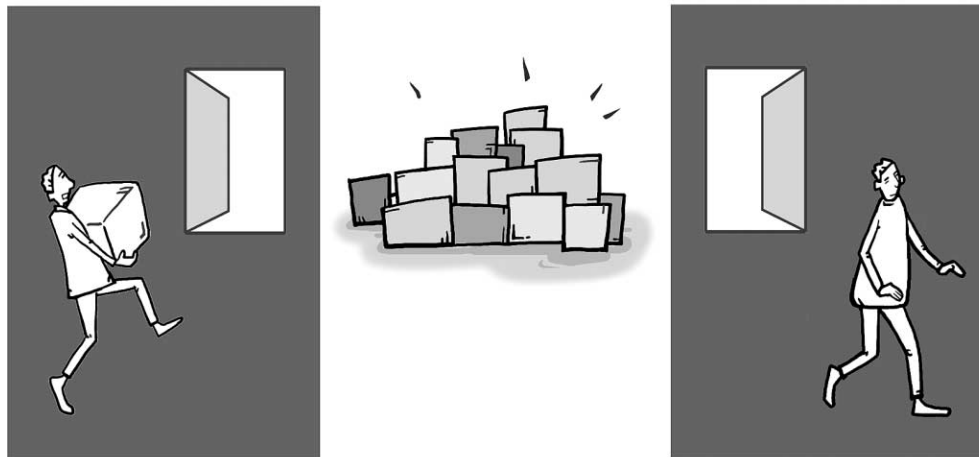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잘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 바로 내 성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돼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 이 세상 율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다 탁 트인단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그러나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불 때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서 있으면서 정신계를 받아들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신계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의학계에서도 불 때에,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핵정을 해 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알콜에 앉아 있는 의사를 보시며) 안 그렇습니까, 의사 나오세요? 그. 약을 파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약사? 응, 난 이름도 몰라요. 약사나 의사도 이런 공부만 안 한 사람 다르고 한 사람이 달라요. 안 한 사람은 그냥 건건이 걸려요. 우리 절에도 산부인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도 걸림이 없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 애로가 많았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무슨 까닭일까요. 그게 대처가 되니까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저 아주 모습을 감기가 들어도, 폐가 나 빠질 걸기라도 소화제를 먹고 그냥 낫는단 말입

다해서 자세히 하려고 해도 자세히 못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귀가 떨어져 내가 자세히 안 해도, 킁만 들어도 벌써 '저건 무슨 소리야.' 하고 알게끔 돼 있습니다. 소가 음메 해도 벌써 무슨 소린지 알게끔 돼 있고요. 개가 멍멍 짖어도 무슨 소린지 알게끔 돼 있고요. 꽃이 바들바들 떨어지고요, 꽃도 살아 있거든요. 말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아침에 해가 떴을 때는 꽃이 아주 기지개를 켜고요, 저녁 나칠이 되면 하나하나 오므라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산에 다니다 보면요, 무엇이든 딱 닿았 다 하면 딱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이든 뭐든 떨어질 뿐 아니라, 별래가 오면 모 두 떨어져서 그냥 삼키고 말아요. 곱테기만 남 아요. 그런데 어떻게 암석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으니 모두 스승이지 아니 업신여겨 불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돌 하나가 굴러가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 돌이 참 풍덩이러처럼 굴러가네.' 하고 웃기도 합니다. 또는 물이 흘러갈 때에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들어잡니다. 그것이 다 말이들이 가르치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전부가. 바

다를 내려다보십시오. 바다가 내가 이런단 말 이 없어도 수많은 물줄기가 다 그리로 흘러가고, 비가 쏟아지면 빗물, 풍물이면 풍물, 약취하는 물, 구정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도, 오만 게 다 들어가도 여유하게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였다 하면 그 흔적은 없어지지요. 그러나 모 두가 스승이 아니라고 볼 수 없겠요.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이 계시지만 불법이 아 니고, 머리를 깎고 목탁을 쳐서만 불교가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佛)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통신과 통신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하고, 이렇게 일체 만물이 다 서로 곱없이 전 달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는 줄 아십니까? 나오면 깎아 버리고 나오면 깎아 버리는 원인이 어땠을까? '살아나가는 모든 게 찰나찰나 바뀌 고 회해서 나뉘니, 지나간 것도 없고 앞으로 다가 가는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한 오늘이다. 그런데 오늘도 공했으니 세월과 세월을 찾을 필요가 없 고 그대도 충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아 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 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무명초를 다 깎아 버리면 또 나고, 그게 정상이요. 깎아 버리 고 아주 안 난다면 정상이 아니죠. 나고 또 깎고, 나고 또 깎고 우리가 한 발짝 딛고 또 딛고, 한 발 짩 딛고 또 딛고, 밥 먹고 또 먹고, 푹 누고 또 누 고, 이러니까 곱없이 우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불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사가지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게 다 그냥 불교죠. 그런데

불교 안에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따로 개별적 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가서도 '가톨릭교 기독교 따르더라도 나누지만 불교 안에 종교가 전부 있는 거다. 그 불교 안에서 결상 하나 이쪽으로 놓고 내 결상, 저쪽으로 하나 놓고 내 결상, 하는 것이니 그것은 너무 웅충한 것이지. 지구 안에 우리 생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안 에서 오히려 피하면 뭐 하고 저리 피하면 뭘 하나?' 그리고 공동묘지가 가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 묘 에는 불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오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 불의 뜻을 아느냐? 세계 전체, 이 우주 전체가 모두 불바퀴가 해야될 수 없이 있다. 그게 불이 들어냐? 생명이 또 들어냐? 모습은 다 다를 지언정 어찌 생명이야 들어겠느냐?' 하고 얘기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가 야, 들어 주니까 재미있어요. 그 사람네들은 다 가톨릭교 기독교거든요. 하하하... 어느 스님이 들어갔다 내쫓았다면서 신도들이 나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초경을 해 놓고 트트하면 그 냥 내쫓는대요.

그때도 사람들이 창에 꼭 찔는데 들어가서 (주목으로 법사를 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팽팡 치고 얘기했죠. 허허허... 그랬더니 팽 넣고 잘밤 을 해서 이런 들뜬모로 하나를 하고요, 찌개를 그 냥 한술을 해서 들고 노비까지 가지고 왔어요. 쫓 겨나지 않아요. 허허허... (대중 웃음) 그래서 편 도 가르치 않았고, 또 진리가 편이 갈라져 있는 것 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때도 그 말기를 알아듣고 그렇게 해 주시는 그 마음도

역시 동일하구요. 뭐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그런 것도 없이 아주 평화스럽고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까닭을요. 정말 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요, 아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이고, 언제냐 그 노랑도 상투를 걸어서 내 낭군 되느냐.' 하는 셈으로 '언제나 걸려져서 진짜 자유스럽게 저 집안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 이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히! 날더러 하라고 뭐 등에 썬 불었나?' 이러면서도 그게 아 니에요. 자기의 소임은 소임대로 아주 좋고 맏고 해야죠. 못하든 잘하든 말입니다.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떨어놓고 하기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 살하고 거짓 없이 해야죠. 이 세상 진리가 아주 거 짓 없이, 선업이면 선업대로 피할 길이 없고, 악업 은 악업대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런 자유인이 돼야 이러는데 왜들 살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바가지로 드는 것도 아 니고 자기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인데 말입 니다. 그럼 질문을 받았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나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세해를 맞이 하셔서 부처님의 기쁘로, 불자님의 기쁨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례에서...
2006년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믿어주신 은혜, 보은에 감사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전자식 2중문 3중정보 **특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닫문만 열어도 정내 전지역 정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사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

청초 소원성취 특별기도 **55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윤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 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특별 선물 : 청견스님 친필 "佛" 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 **날 짜 : 2006년 1월 21일(토요일) 저녁 9시 ~ 2006년 1월 22일 오전 7시** (철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말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면복(하의)2매, 긴단단 긴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산마음선원**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
수행 중심 교 육 도량

○ 서울 군자법당 02)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빌딩 200M 이상소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선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취회전 50M 경유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선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부처님 호심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등 단견 복식 호심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기부좌, 반기부좌, 평좌, 우물 굽기, 고무래 변형자세 뜨고그리고 앉은 자세, 장게자세, 일어서 자세, 행선, 좌선

▶호심법
들숨: 배꼽아래 3차 단견이 아닌 지골부위로 끌고 간성하게 숨이 자질로 내려가면, 가슴 지근근의 단견을 열면서 두자님과 인연된 기왕 받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초로문인 세로로나와 곱안없이 나와 마음이 자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기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자질로 쉬어지며 완뉘면, 다아닐면, 토카민 등의 쾌적·쾌락 초로문이나 나와 예나지러 전환할 때 뇌피에서 2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상애풀 체험하게 된다.

『숨을 취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취차게 잘 하는 법 참초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간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 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거나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 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배자나, 절, 염불, 독경, 요가 (렘퓨터·수월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심수행을 장문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로코며 일 필리도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견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인체내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기둥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7상기법, 화법, 담요, 고행암,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발·배·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양극조, 파부거지,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할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583-7886
청 견 소 비 :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